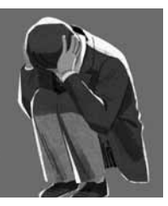
복지시대 탈출구 없는 '외톨이의 삶'

화재 신고에 출동…집안 가득 오물·쓰레기더미 악취
단절된 삶 살던 광주 50대 실신 상태에서 극적 구조
복지담당자 도움 외면 은둔생활…사회가 감싸안아야



최근 고령화에 따른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와 단절한 채 지내다 목숨을 잃거나 숨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독사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스스로 몸을 감추는 은둔생활을 하는 탓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나홀로 가구를 점검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와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112상황실에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화재가 아닌 박모(51)씨 집의 악취신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 집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다.

23.1㎡(7평) 남짓한 박씨의 집은 현관문부터 부엌과 거실까지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변기와 싱크대, 배수구 등도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한 발짝도 내딛기도 어려웠고, 집안 곳곳에서 대·소변 등의 각종 오물과 바퀴벌레 등도 눈에 띄었다. 19년간 사회복지 현장을 누빈 공무원도 "이런 악취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경찰과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 안에서 눈동자에 초점이 풀린 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박씨를 발견했다. 박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다. 박씨는 당뇨 등 지병도 앓고 있었다. 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씨가 사회와 멀어진 채 쓰레기더미에 묻혀 살아온 사정도 딱하기만 하다.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박씨는 수년째 사회복지사의 연락을 거부하며 은둔 생활을 고집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연락을 하면 화를 내고 가정 방문을 거절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주변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해왔다.

한때 학습지 교사였던 박씨는 다단계 영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외부와 단절된 삶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박씨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의 양은 종량제봉투 100ℓ 30여개, 50ℓ 30여개 이상 분량으로, 이를 치우기 위해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등 11명이 동원됐다.

정미희 금호1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은 "금호1동에만 기초생활수급자만 1500세대가 넘지만 담당 복지사는 8명 뿐"이라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박씨처럼 대화조차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박씨의 사례는 나은 편이다. 혼자 지내다 숨진 뒤 한 참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서구 양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김모(여·66)씨가, 지난달 20일에는 광천동 한 아파트에서 A(64)씨가 홀로 살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씨도 이웃들과 단절한 채 반려견과 함께 생활했었다.

한편, 2016년 기준 광주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은 4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적능력 떨어진 선원 임금 1억여원 가로챈 60대 구속

목포해양경찰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사문서 위조, 횡령 등)로 손모(6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선 선원 이모(54)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이씨의 임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받아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뒤 이씨 통장에서 490차례나 돈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김기덕 제자 전재홍 감독 알몸 몰래 촬영 '벌금형'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화재 대피 이렇게 제406차 민방위의 날인 21일 광주시 북구 중흥3동 꼬마박사어린이집에서 열린 민방위교실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일가족 6명 부상

5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일가족 6명이 다쳤다.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장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46)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A씨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4살 여자아이가 다쳤다.

A씨와 가족들은 곧장 차량에서 내려 장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 동승자 1명이 30m정도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면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항의하던 A씨 등 4명도 넘어져 다쳤다.

장씨는 1㎞정도를 달아난 뒤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재단 지도부 공백 혼란

이사장·상임이사 동시 공석에 사업 차질 우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왜곡대응 등을 주도해온 5·18기념재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일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되는 등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인 만큼, 내외부적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정상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재단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영진 신임 이사장 거취와 최근 응모원서 접수를 마친 차기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안건을 22일 이사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밀실추천' 의혹을 받아온 김 이사장이 더는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도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 공석으로 남겨둔 채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양래 현 상임이사는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며, 차기 상임이사 공모에 응하지 않아 임기가 끝나면 15명 이사진 가운데 한 명으로 돌아간다.

만약 이사회가 김 이사장을 설득하고,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상임이사를 공백기 없이 선임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각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암매장 발굴 등 5·18 주요 현안을 주도해온 김양래 상임이사의 공백도 문제다.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심지 발굴조사를 비롯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지만원씨와 역사 왜곡 회고록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 등을 이끌어왔다.

김 상임이사는 이 밖에도 5월 16~17일 열리는 아시아인권헌장 광주선언 20주년 기념행사, '5·18 진상규명 특별법'으로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에 전달할 자료 정리, 5·18 학교 교육 교재발간 등 각종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한편 (사)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는 2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5·18기념재단의 혁신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숨진 공무원 제기 비리 의혹 관련 맥쿼리 입장 표명 "고인 모함 사실과 달라…민자도로 면허 업체와 계약"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광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 A(61)씨가 유서에서 광주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 운영 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광주일보 21일자 6면**〉한 것과 관련,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는 21일 '맥쿼리펀드의 입장'이란 이메일을 통해 "광주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쿼리펀드는 또 "광주시와의 재구조화 협의 과정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조건은 쌍방간의 승인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고인을 모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맥쿼리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1개 국내 민자도로는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면허를 갖춘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의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유서에서 맥쿼리 운영사 내 상납구조, 운영비 부풀리기에 따른 횡령, 무면허업자에 수년간 교량 및 터널 관리 위탁 등을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19 덕택에…등굣길 심정지로 쓰러진 대학생 두번 모두 살아나

○…등굣길에 두번이나 심정지가 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대학생이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두 번 모두 생명을 지켜내 화제.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26분께 용산구 삼각지역의 한 횡단보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끝에 유지은(여·23)씨를 살려냈다는 것.

○…이날 유씨는 심폐소생술에 이어 자동심장충격기(AED)까지 가동한 끝에 호흡을 되찾았는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유씨는 지난해 2월에도 삼각지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해 살렸던 시민"이라며 안도의 한숨.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증축가능)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집별도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